

라마단 기간 실시간 소식 및 기도요청

튀르키예 이모세 박하나(mk 이천국,이소망)

1. 부르사 시 여행 소감

부르사 여행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. 밤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둘째 승이가 시작한 찬양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:)

부르사 여행 첫 날(3/1)이 라마단이 시작되는 날이었는데, 밤늦게까지 식사하고 교제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튀르키예에서도 라마단 시작이라는 이유로 길거리의 거의 모든 가게들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면서 헛된 우상과 종교가 이 나라를 얼마나 강하게 누르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승이의 찬양이 이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 처럼,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천국 소망과 기쁨을 부으실 것이라는 믿음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.

2. 영혼 교제 소식

무슬림들이 라마단에 해가 진 뒤 금식을 끝내고 먹는 식사를 '이프타르(iftar)'이라고 하는데, 이 이프타르에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튀르키예에서는 관청에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저녁 식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. 3/3 저녁에 평소에 친하게 지낸 가게 사장님에게 초대 받아서 함께 저녁식사를 했는데, 이 시간을 통해 현지 친구들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하지만 평소에는 그냥 사람 좋은 아저씨로 보였던 사장님에게도, 또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낸 친구들에게도 이슬람의 우상을 향한 헛된 신앙이 깊게 자리잡고 있음도 보았습니다. 한 친구는 저에게도 알라를 믿고 그 축복을 받으라며 "정말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" 권유하기도 했습니다.

마 5:15-16

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

예수님께서 그 빛을 등경 위에 두어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시기 위해,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. 특별히 헛된 신에게 예배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 공고히 하는, 영적 어둠이 더 깊어지는 이 라마단 기간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더 분명하게, 더 강하게 비추이기를 원합니다.

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을 하지 않고 점심을 먹는 소수의 현지인들을 찾아 다니며 이들과 대화해 보고, 또 이프타르 자리에도 함께 하며 친구들과 깊이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.

- 1) 현재 교제하고 있는 친구들과, 또 새로 만날 친구들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려 알 수 있도록.
- 2) 하나님께서 튀르키예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닮아 친구들을 사랑하며,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도록, 아직 언어가 많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정 가운데 주시도록

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! 🙏 동역자들의 기도가 늘 너무 큰 힘이 됩니다 ^^

